

“강석희는 이제 초심으로 돌아갑니다”

강석희 전 어바인 시장, 어바인 시의원 도전 선언



어바인 시장 시절 연례 시정연설을 하는 모습 © 강석희

미국 LA=김재현(시사저널 미주판 편집국장)

강석희 전 어바인 시장이 오는 11월 선거에서 어바인(Irvine) 시의원(제1지구)에 도전한다. 연방 정부의 고위 정무직을 마치고 ‘시의원’이라는 지역사회 의 가장 낮은 곳에서 다시 시작하겠다는 강 전 시장의 결단엔 ‘올드보이의 귀환’이 갖는 경륜과 초심이라는 두 가지 의미가 동시에 담겨있다. 그가 돌아가는 곳은 캘리포니아에서 13번째 큰 도시로 성장한 어바인 시, 한국에서 “미국 간다” 대신 “어바인 간다”고 할 정도로 조기 유학지로 잘 알려진 곳이다. 강 전 시장에게는 제2의 고향이다. 한때 이 도시의 정치적 중심점이었던 한인 커뮤니티는 최근 몇 년간 시의회

내에서 가시적인 목소리를 낼 한인 정치인이 없어 정치적 공백기에 직면해 있다.

강석희(Sukhee Kang) 전 시장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어바인 시의원을 두 차례 지냈고, 이어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어바인 시장에 두 차례 선출되었다. 그는 한인 최초의 대도시 직선 시장으로, 시민들의 압도적인 지지(64.1%)로 재선에 성공한 시장으로 한인 이민 역사와 어바인 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다.

그리고 강 전 시장은 지난 2023년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임명을 받아 2년간 연방총무조달청(GSA) 서부지역청장을 역임했다. 여기서 그는 정부 운영의 투명성, 효율성, 그리고 책임성을 확립하는

데 주력하면서 연방 정부 차원의 네트워크와 행정 경험이란 큰 자산을 얻었다. 지난해부터 그는 모교인 고려대학교의 국제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다.

타고난 공복(Public Servant)

강석희 전 시장의 시의원 출마 소식에 이런 반응이 많았다. “아니, 왜?” 이 짧은 질문에는 두 차례나 시장을 하고, 연방 정부의 고위직까지 지낸 분이 무슨 영화(?)를 얻겠다고 다시 시의원으로 출마하려는 냉소적인 의미도 담겨 있다. 사실 강 전 시장이 아무리 시장으로서 엄청난 업적을 남겼다 하더라도 그간의 공백을 생각하면 어떤 유권자도 가질 수 있는 의문이다. 이 원초적 물음에 대한 솔직한 대답이 선거운동의 시작이라는 생각에 강 전 시장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왜 이런 결정을 내리셨나요?”

강 전 시장은 이렇게 답했다. “그 이유로 몇 달간 숙고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이 제가 공복으로 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에 온 이민 1세로, 그야말로 최저임금의 세일즈맨에서 시작해 대도시의 시장을 지냈고, 대통령의 임명을 받은 고위직으로 국가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영광도 누렸습니다. 그럼 과연 이 시점에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이 마땅한가를 솔직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39대 지미 카터 대통령의 삶이 많은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는 재선에 실패한 단임 대통령이지만, 가장 인도주의적인 대통령으로 추앙받습니다. 1982년에 카터재단을 설립해 비영리단체 Habitat for Humanity와 함께 일하고, 세계인의 인권 옹호를 위해 일생을 바쳤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까지 평생 봉사하셨습니다. 이렇게 공복으로 일한다는 것은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자기가 속한 커뮤니티에서 봉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을 비우고 그동안 경험한 많은 일을 자산 삼아서 앞으로 제2의 고향인 어바인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찾자. 그렇게 자연스럽게 귀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22년 전에 시작한 시의원으로서 커뮤니티를 위해 봉사하려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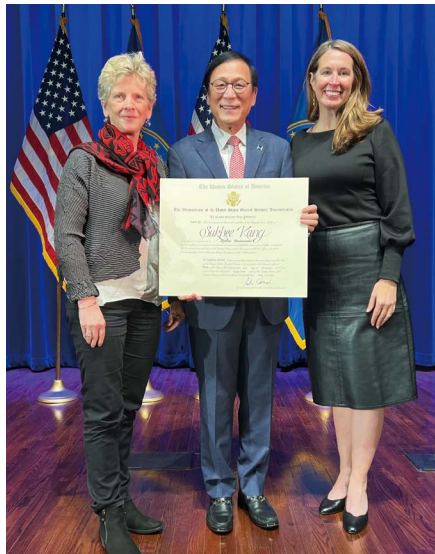
실망스럽게도(?) 그의 답변은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그를 옆에서 지켜본 사람이라면 “천생 공복이니 할 일을 찾아간 것이지”라고 생각할 것이다. 결국 그에게 직책보다 중요한 것은 봉사다. 필요한 곳에서 일하는 게 공복의 참된 모습이자 역할이라면, 계속 성장하는 어바인을 위해 할 일이 많은데, 그동안 쌓은 경험을 다시 지역사회를 위해 돌려주고 싶었을 것이다.

지난 2018~19년 강 전 시장은 LA우리방송에서 《나의 꿈, 나의 인생》이란 대담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당시 출연자 가운데는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후보(현 주지사), 주디 추 연방 하원의원, 하비에르 베세라 캘리포니아 법무장관(전 연방 보건복지부 장관) 등 한인 언론 단독으로는 만날 엄두도 내기 어려운 인물이 많았다. 더 놀라운 것은 이들이 강 전 시장의 초대 전화를 받고 한걸음에 달려왔다는 사실이다. 그의 네트워크가 얼마나 대단한 자산인지 잘 보여주는 사례다.

이민 1세대의 성공 신화와 정치적 각성

강석희 전 시장의 삶은 전형적인 ‘아메리칸드림’의 성취 과정이자, 동시에 소수계 이민자가 주류 사회의 리더로 성장하는 교과서적인 경로를 보여준다. 1952년 서울에서 태어난 그는 고려대학교를 졸업한 후 1977년 부인(조앤 강)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왔다. 그는 전자제품 유통업체 서킷 시티(Circuit City)의 영업사원으로 시작해 톱 세일즈맨으로, 그리고 매

장 총괄 매니저로 15년간 근무하며 특유의 성실함으로 명예의 전당에 올라 서킷 시티 역사의 한 페이지도 장식했다. 그의 인생을 바꾼 결정적인 전환점은 1992년 발생한 LA 4·29 폭동이었다. TV를 통해 한인들의 삶의 터전이 무너지는 것을 목격한 그는 소수계 커뮤니티가 정치적 힘을 갖지 못할 때 얼마나 취약해질 수 있는지를 절감했다고 한다. 이후 그는 오랜



연방총무조달청 서부지역청장으로 임명장을 받는 강석희 전 시장 © 강석희

지카운티 한인회, 한인장학재단(KASF), 한인민주당위원회(KADC) 등에서 활동하며 풀뿌리 시민운동에 참여했다. 이것은 이후 그의 정치 입문의 기반이 되었다.

강 전 시장은 2004년 어바인 시의원으로 공식적인 정치 행보를 시작했다. 당시 그는 2만 가구 이상의 집을 일일이 방문하며 유권자들과 대화하는 ‘발로 뛰는 선거’의 정석을 보여주었다. 이는 훗날 그의 강력한 지지 기반이 되었고, 2008년 시장 선거에서 크리스티나 셰이(Christina Shea)를 누르고 당선된 그는 미주 한인 역사상 최초의 인구 10만 명 이상 대도시 직선 시장이라는 기록을 세

웠다.

그가 시장으로 재임한 2008~12년은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닥쳤던 시기다. 대부분 도시가 예산 삭감과 공무원 해고에 나섰을 때, 그는 단 한 명의 직원도 해고하지 않고 예산 균형을 맞추는 경이로운 행정력을 발휘했다. 이러한 성과는 그를 ‘안정적인 행정가’로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어바인 시의원 제1지구

2024년 3월 어바인 주민투표를 통과한 ‘Measure D’는 기존의 시 단일 선거구(At-Large)를 6개의 선거구(By-District)로 분할하고, 시장을 포함한 시의회 의석을 5석에서 7석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선거구제 전환은 각 지역의 목소리를 시정에 더 잘 반영하려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

강 전 시장이 출마하는 제1지구는 어바인 북부를 대표하는 지역으로, 오차드 힐스(Orchard Hills), 이스트우드 빌리지(Eastwood Village), 노스 파크(North Park), 노스 파크 스퀘어(North Park Square), 노스우드(Northwood), 어바인 마켓플레이스(Irvine Market Place), 스톤게이트(Stonegate) 등을 포함한다. 이 지역은 그가 1986년부터 거주하며 가족을 부양하고 지역사회에 헌신해온 삶의 터전이기도 하다.

현재 제1지구의 시의원은 멜린다 류(Melinda Liu)이다. 그녀는 2024년 11월 치러진 첫 지구별 선거에서 득표율 32.3%로 당선되었다. 류 의원은 대만 출신의 변호사로 중국계 커뮤니티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다. 2024년 선거에서 류 의원에 맞선 한인 존 박(John Park) 후보는 31.7%를 얻어 불과 109표 차이로 석패했다.

제1지구는 어바인 내에서도 교육열이



강석희 전 시장 부부, 아들과 딸 부부, 그리고 손자들 © 강석희

높고 주거 환경이 우수한 지역이다. 북부의 신규 개발 단지와 전통적인 노스우드 지역이 섞여 있어 안정적인 행정에 대한 신뢰와 변화에 대한 열망이 공존하는 곳이다. 여기서 강 전 시장의 '검증된 리더십'과 '풍부한 경륜'이 무기가 될 수 있다.

어바인의 아시아계 비율은 44.8%로 미국 내 대도시 가운데 최고 수준이다. 아시아계는 한국계, 중국계, 대만계, 베트남계, 인도계 인구가 고르게 분포되어 있어 소수계 간 연대와 경쟁이 매우 중요하며, 특히 한인 표심의 결집이 당락을 결정짓는 핵심 변수가 될 수 있다. 현재 어바인시 인구는 33만 명, 강 전 시장 재직시 인구 21만 명보다 크게 늘었다. 해결해야 할 복잡한 문제도 많아졌다. 그만큼 더 경륜 있는 시의원이 필요하다. 오랫동안 쌓아온 시정 경험과 연방 정부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어바인을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강 전 시장의 강점이다. 그리고 그는 이번 선거에 꼭 성공해 2년 뒤에는 다시 시장으로 복귀할 기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강 전 시장은 시장 재임 시절 효율적인 시정 운영과 재정적 책임성, 뛰어난 리더십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는 어바

인이 높은 삶의 질을 지키면서 공공안전을 강화하고, 책임 있는 성장을 이끌며, 오랜 전통의 체계적인 도시 계획 원칙을 유지하는 데 힘썼다. 특히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 그는 어바인의 교육기관을 지원하기 위해 상당한 시 자원을 투입하며 미래를 설계했다.

이번 선거에서 강 전 시장은 과거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어바인이 직면한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재정적 책임성과 투명한 정부 운영(Fiscal Responsibility) △공공 안전과 보건(Public Safety & Health) △교육 및 차세대 지원(Education) △책임 있는 성장

강석희 전 어바인 시장 © 강석희



(스마트 성장)과 주택 정책(Housing & Responsible Growth) △교통 정체 해소와 인프라 현대화(Transportation & Traffic Relief) △지역 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Economic Vitality) △환경 지속 가능성과 도시의 미래 보호(Environmental Sustainability) 등 어바인의 미래를 위한 7대 공약을 제시했다.

우리 시대의 거목, 다시 주민의 곁으로

미주 한인 정치사에 있어 강석희라는 이름은 단순한 성공 신화를 넘어서 '헌신과 정직'의 상징이다. 그는 이민 1세대의 한계를 몸소 돌파하며 후배 정치인들에게 가능성을 현실로 보여준 거목이다. 그의 귀환은 '과거의 인물'이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성공 경험과 미래의 비전이 결합한 강력한 리더십의 복귀를 의미한다. 그는 어바인의 고유한 가치인 '안전, 교육, 환경'을 지키면서도, 급변하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구체적인 해법을 담아 출사표를 던졌다.

어바인의 한인 커뮤니티는 한인 정치인 부재로 인한 불편한 상황에서 그를 소환했다. 이번 선거는 한인 사회의 정치적 위상을 다시 한번 정점에 올려놓을 기회다. 하지만 요구만 있고 행동이 따르지 않는다면 소중한 자산을 잃게 될 것이다. 어쩌면 한인 커뮤니티의 문제는 내세울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밀어줄 힘과 의지가 부족한 것일지도 모른다.

한인 정치력의 부활인가, 세대교체의 지체인가? 강석희 전 시장의 정계 복귀가 한인 커뮤니티에 던지는 질문이다. 강석희 전 시장은 정치 일선에 입문한 이후 줄곧 차세대 한인 정치인의 성장을 돕는 가교 역할에 진심이었다. 이제 그를 다시 불러냈으니 그 몫은 한인 커뮤니티가 온전히 감당해야 할 것이다. ■